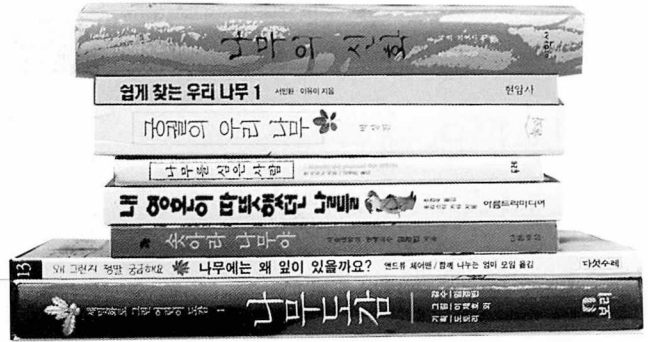


글과 그림으로 거듭난 생명의 나무들

도감, 에세이, 문학, 어린이책 등 나무 다룬 책들



서가에 꽂힌 책을 보면, 나무의 살을 저머내 만든 책이 마치 잠시 외유하다가 자신의 빈집을 다시 찾아든 모습 같다. 이념과 취향이 달라 치고 받던 책들도 영혼의 고향에 온 듯 휴식에만 열중하고 있다. 나무는 그 형체를 잃었지만, 그렇게 자신을 쫓고 버림으로써 만들어진 다양한 목소리와 향기는 여전히 나무의 것인 듯하다.

나무와 책의 친연관계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나무는 실생활과 정신생활에서 사람들과 늘 함께 해왔다. 나무의 '존재론'인 도감류부터 나무의 '수사학'인 시와 나무의 '행동론'인 실용서까지 나무를 다룬 책들은 다채롭다.

도감은 에세이화, 에세이는 정보화 추세 나무도감은 찾아보기용 백과사전과 읽고 감상하는 나무 이야기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로 나무의 학명부터 서식지, 나무와 관련된 전통까지 전부 훑고 있는 개론서로는 《나무백과(전5권)》(임경빈, 일지사)가 널리 읽혀왔다. 《쉽게 찾는 우리나무(전4권)》(서민한 외, 현암사)는 꽃 색깔별로 나무를 분류하고, 책 크기와 무게를 줄여 휴대할 수 있게 만든 실용적이고 대중적 도감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감과 에세이를 겸하는 예로 《숫아라 나무야》(임경빈, 다른세상)는 '아름다운 가로수' '열매를 이용하는 나무' 등 독특한 분류법과 감칠맛 나는 소개글을 통해 즐거운 도감 읽기를 이끈다. 보리에서 펴낸 《세밀화로 그린 나무도감》(도토리 기획, 임경빈 외 글·이제호 외 그림)은 도감출판의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고 있다. 공들여 그린 세밀화는 사진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나무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나무 백가지》(이유미, 현암사)도 추천 나무도감에 포함시킬 만하다.

나무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나무일기'는 삶의 가장 진솔한 풍경을 보여준다. 《목수일기》(김진송, 웅진출판)는 뒤늦게 목공예에 뛰어들어 한 늦깎이 목수의 나무사랑과 나무 다루는 법 등을 잔잔한 문체로 전한다. 조선시대 한국의 궁궐에 심은 수목 98종을 하나씩 살펴본 《궁궐의 우리 나무》(박상진, 놀와)는 나무로 살펴보는 궁중 문화사라 할 만하다. 굳이 글로 쓰지 않고도 아름다운 에세이를 선보이는 책도 있다. 당산나무 풍경만을 찍은 사진집 《동구밖 당산나무》(오상조, 눈빛)가 그렇다. 문명에 밀려 사라지는 나무들의 운명이 흑백 톤에 실려 슬프게 다가온다.

수문출판사의 <숲과문화총서>는 유용한 정보를 담은 책들이 많다. 《소나무와 우리 문화》(전영우 엮음)는 나무의 식생, 자생지, 나무와 관련된 일상문화 등을 매우 풍부하게 소개하며, 《숲과 음악》(김기원), 《숲과 미술》(송형섭) 등에서는 동서양 예술에서 나무가 어떻게 표현돼왔는지 말해주 흥미롭다. 《신갈나무 투쟁기》(차윤정의, 지성사)는 신갈나무가 병충해와 벌이는 한판 승부 등 그 끈질긴 생명력을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낸다.

나무의 생명성 들려주는 문학과 어린이책들 나무를 소재로 한 소설을 보자. 인디언계 미국작가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조경숙, 아람드림미디어)은 나무를 통해 단순하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디언을 그린다. 주인공 소년은 "영혼이 빠져나간 마른 통나무만을 땀감으로 쓰는 이유"처럼, 생명체인 나무와 인간의 더부살이를 배우며 성장한다. 장 지오노의 유명한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김경은, 두레)은 평생 동안 황무지에 나무만을 심어온 한 양치기 노인의 숭고한 삶을 통해 인간의 위대함과 자연의 정직성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한다. 소설가이자 신화연구자인 이윤기의 소설 《나무가 기도하는 집》(세계사)도 권하고 싶다. 나무를 통해 세상을 가늠하는 노총각 주인공. 버려진 나무를 가져와 '나무고아원'을 가꾸는 그는 "사람은 나무와 같다. 옮겨 심고 뿌리가 튼실하게 내릴 때까지는 흔들어진 안된다"고 말한다. 소설은 아니지만 세계 각지의 나무 신화들을 유려한 필치로 그려낸 자크 브로스의 《나무의 신화》(주향은, 이학사)는 북유럽 신화의 물푸레나무 등 각 문명권의 '우주목'을 중심으로 문명사를 풍성하게 들려준다.

어린이 분야는 《나무에는 왜 잎이 있을까?》(앤드류 체어맨, 편집부, 다섯수레),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났어요》(김동광, 정순임, 아이세움) 등 지식과 정보를 이야기로 풀어주는 책이 주류를 이룬다. 《나무의 일생》(위베르 방 케무잉 글·H. 기욤 르농 그림, 권명희, 여명미디어)은 신나는 동화, 수수께끼, 낱말 맞추기, 만화 등과 나무 상식을 결합시켰다. 《폴코스 나무여행》(우종영, 현암사)은 나무상식을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전하고 책표지에 박태기 나무 씨앗을 담아 나무를 직접 키워볼 수 있게 해 인기를 끌었다.

—강성민 기자